

위로하시는 말씀

시 119:49~64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주제는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괴로움을 어루만져 고통을 잊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고에 대한 칭찬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성경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로가 덧없음을 말씀합니다. 위로가 없는 상황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경에 처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17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말씀이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으고 한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사 전략상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보다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을 정복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가나안 정복은 복이 아니며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모든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부질없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자녀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과 한 약속은 깨어지기 쉽고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병들었을 때, 실패와 실수로 괴로울 때, 배반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모든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배후를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과 구원을 소유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합니다. 그들은 성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에 교만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끝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 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들에게 받는 비난과 조롱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위로하십니다. 54절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말씀은 ‘찬송의 제목이 되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는 의미가 더 큼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므로 우리는 죄악을 혐오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므로 시편 기자는 마음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핍박에 대해서 분노를 발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계를 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고 분노를 발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나 여자가 끼어 들때 남편과 아내가 그 대상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우상이나 죄악이 끼어드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방 여자와 음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분노하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와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심판하자 이스라엘에 퍼졌던 온역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혐오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분노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밤’은 곤고한 상황을 말합니다. 악으로 가득한 어려운 상황이나 외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납니다.

시편 124편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숫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 신음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해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며 두려워하여 울부짖고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뜻의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 닛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깃발=승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이름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그 이름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 수 있고 그 이름으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분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 하나님으로 나의 분깃을 삼는 것입니다. ‘분깃’이란 말은 ‘자신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분깃’이라는 개념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와 식구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1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의 소출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의 소출 대신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양식과 생활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나의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몫, 내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시편 23편 1~2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시며 쉼 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분깃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다는 뜻입니다. 57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나의 분깃이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봉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대하 6:42)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시고 사랑과 은혜의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 우리는 신속하게 죄악에서 돌아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에서 즉각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비춰 주는 거울입니다.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죄를 씻어주며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분깃을 삼는 것은 죄악에서 돌아켜 신속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동행

61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얹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61절에 ‘악인의 줄’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인의 중상 모략과 음모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기만이고 유혹이며 속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말씀과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2절에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는 표현은 악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밤중’은 잠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시편 기자는 일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뜨거운 헌신을 말합니다.

중학교 시절,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의 친구들과 함께 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나무를 뽑겠다며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다 날이 새기도 했습니다. 비록 나무를 뽑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다고 밤을 새는 저희들을 어여뻐 여기시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밤중’에는 은밀한 죄의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죄는 밤에 이뤄지는 것이 많습니다. 죄는 빛

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시편 기자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것처럼, 밤중에 순결한 신앙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63절과 64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민족, 문화, 언어가 달라도 주님을 믿으면 한 가족이 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전 4:12). 신앙은 성도들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심으로써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분깃을 삼을 때,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낙심되며 눈물 날 때에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돼 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돼 주시사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